

부부와 가족윤리에 대한 단상

= 추석명절 본질의 훼손을 개탄한다. =



寒梅山房主人 白甫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상임고문

추석은 승조효친과 오곡백과의 풍성한 수확을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는 명절이다. 민족대이동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고향!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고향을 추석명절에 기를 쓰고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부모형제와 친인척을 찾고 나를 길러 낸 고향의 공기와 물과 그 땅에서 자란 먹을거리에 대한 귀소성과 조상을 모시고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서 별초와 성묘를 하는 이 아름다운 풍습은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의 자랑이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쾌청한 가을밤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에 그리운 사람과 고향산천을 비춰서 향수를 달랜다. 이러한 풍습은 얽힌 혈연에 의한 가족문화가 뿌리이다. 그러나 추석명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족윤리의 변화가 추석명절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부부는 자식을 생산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은 국가사회 조직의 기본단위이다. 부부사이의 혈연으로는 남남이지만 남녀가 부부로 결혼하여 이신동체로

새로운 혈족을 탄생시켜서 가족을 이루고 자손으로 혈맥이 이어 간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농경 문화권에 살아 온 우리겨레는 혈연과 혈통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정착생활을 전통으로 간직하여 내려왔다.

그러나 오랜 농경문화시대와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소위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문화와 문명은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 변화 중에서 핵가족화에 이어지는 고령화와 소자화는 전통적인 혈통과 친족 내지는 혈족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말았다. 산아제한을 부르짖으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무색하게 되었다. 부부간에 산아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지자 출산율 세계최하위에 이혼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 가정이 파괴되고 혈족단위가 붕괴되고 말았다. 교통수단과 정보교류와 기술의 발달로 농경문화의 전통적인 '마을' 즉 집성촌은 농촌의 경제적인 낙후와 맞물려서 몰락과 아울러 소수의 노농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다.

산아조절이 자유자재로 소자화와 가족 윤리의 변화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출산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건강한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보통 5~6남매이고 다산일 경우에는 7~8남매의 자식을 낳아서 길렀다. 빈곤의 원인을 다산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으로 산아제한을 하였다. 비록 가난은 하였지만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협동심과 양보심과 인내심이 강해서 산업사회의 주역으로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자유자재로 아이를 낳고 말고 하게 되자 아이 하나에 많아서 둘을 낳아 기른다. 애지중지 너무너무 귀엽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자신만 알고 부모를 포함하여 남에게 대한 배려심이나 더불어 사는 지혜가 실종된 유아독존의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세상이 시끄럽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친인척이나 혈족관념이나 공동체의식이 희박하고 이기심이 몹시 강한 것이 문제이다. 모든 부문의 갈등이 이 세대가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산아조절이 자유자재로 되어서 부부와 가족의 윤리관의 변화를 가져 온 또 하나의 요인은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사노동에서의 해방 및 경제적인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여성의 농경사회에서의 농경노동과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너무나 가혹하였다. 오늘날 모든 가사노동은 기계화와 전자가 이루어져서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편리해졌다. 그럼으로 해서 전통적인 혈연과 가족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노령의 부부나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원인도 여기

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과 농업과 가사노동의 해방이 가져 온 것

필자가 어린 시절인 70여년 전에 부녀자들의 육아와 가장 가혹한 농업노동은 모심기와 김 메기에 길삼과 알곡의 방아 찧기와 세탁노동이었다. 방아 찧기의 기계화도 이 무렵에 겨우 시작이 되어 곳곳에 정미소가 농촌에 등장하였다. 대가족의 세탁노동을 지금의 젊은이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세탁 후에 층층이하 어른들의 겨울철 명주옷과 여름철의 모시옷의 손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리미와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언제부터 농촌에서 사라졌는가 기억이 새롭다. 농경사회의 농촌여성들의 농업과 가사노동을 오늘과 비교를 해 볼 일이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편의함의 역작용으로서 가장 가까운 친형제자매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 지는 판이고 처족에 대해서 더 친근감이 가고 있으며, 사촌끼리도 스킨십이 없으니 정이 점점 더 희박해 지는 요즘 세태에는 친인척간의 상부상조정신도 오간 데가 없어졌다. 시부모를 모시느냐가 결혼의 절대조건이고 추석명절의 가사노동이 싫어서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고향 아닌 관광지에 가서 세트차려상으로 조상을 모신다고도 들린다. 인고의 어머니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공자와 맹자가 오늘날에 되살아 와서 삼강오륜을 설파해도 귀담아 듣는 이가 몇 사람이나 될까. 복제동물에 이어 복제인간이 머지않아 등장할 판인데 부부사이에는 또 어떻게 진화(?)하고 가정과 가족윤리는 또 어떻게 발전할런지 예측불허로소이다. ㉞